

오름의 품속으로 살포시 안기다.

오름 매니저 이승호

탐라국이라 불리었던 물 건너 고을이라는 의미의 제주. 최근 관광객들이 줄고 있다는 매스컴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국 여행객들 감소 영향도 있지만 관광객들이 이젠 볼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그런 천편일률적인 볼거리 위주의 여행코스. 방법이 없을까요.

헉헉~ 덥습니다. 갈 길이 멍니다. 그런데 웬 동산 하나가 코스 중간을 가로막습니다. 뭐야. 힘들어 죽겠는데. 트래킹중 저에게 맞닿은 오름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오름이란 화산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작은 화산체와 지형적으로 경사를 갖는 독립된 언덕이나 동산(모루)를 말합니다. 촌락형성의 모태, 신들의 고향, 목축업의 근거지, 항쟁의 거점이었던 곳. 그러기에 이곳은 제주도 나아가 그 역사를 함께 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루게릭병 투병 중에도 고김영갑 작가가 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용눈이 오름. 오름 매니저로써의 첫배정지입니다. 와보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이방지인 이 제주에 남게 하고 싶었었는지. 그렇군요. 여인의 굴곡을 담았군요. 부드러운 능선, 적당한 높이, 분화구, 말들. 점점이 박힌 구름에 초록과 대비되는 형상이 여느 외국 못지않습니다. 찾아온 수학여행 아이들에게 설명합니다. ‘얘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왕눈이 오름요.’ 헐~ 두 번째 배정지 백악이 오름. 백가지 약초가 자란다고 하여 알려진 곳이죠. 입구 쪽부터 펼쳐진 데크 계단과 푸른 능선이 일품입니다. 거기에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떼들. 또 하나의 앙상블을 이룹니다. 육지에서 온 저에게는 자연스레 ‘알프스 소녀 하이디’ 만화 장면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첫사랑을 만난 듯 설레는 감정은 왜일까요.

많은 탐방객들이 찾아와 순간과 추억을 사진 한 컷에 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색색 옷을 갖춰 입고, 설레는 사랑을 시작하는 예비부부들의 아름다움도. 기억에 남는 인상은 가족 분들이 오셔서 담아내는 모습들 이었습니다. 흰머리가 희끗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중년의 아버지와 어머니, 꿈을 펼쳐나갈 아이들. 하얀 티셔츠를 갖춰 입고 세대 간 정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저에게도 행복감이 묻어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이기에 가능한

장면들입니다.

오름의 최고 매력은 아마도 정상에 올랐을 때가 아닌가 합니다. 땀을 식혀 주는 바람, 고난을 품고 자리를 지키는 해송, 여러 오름들 그리고 중심에 위치한 한라산. 평지에서는 대하지 못했던 풍광들을 가슴 한편에 담습니다. 아! 좋다.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방인인 입장이지만 제주인 들의 녹록치 않았던 삶, 생애, 투쟁들의 숨결도 솟아납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주인 들은 오름에서 태어나 오름에서 살아가다 오름으로 돌아간다고. 도시에서 태어나 문명의 이기들에 둘러싸여 살아왔던 저에게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그럴기에 그곳에 담겨진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송이, 분화구 하나하나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허투루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있는 이곳이 단순한 관광객의 입장이 아닌 누군가에는 치열했던 삶의 흔적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 등 천연의 자연 환경이 가장 큰 메리트인 제주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떠할까요. 찾아오는 이들이 없다면 어떠할까요. 가장 좋은 점은 없는 것을 창출함이 아닌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올레길, 곶자왈 등 제주만이 간직한 매력인 거점을 보전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산세가 험하고 오르기 힘든 도시 산을 경쟁자로서 경주함이 아닌, 어머니의 품처럼 안겨주며 넉넉한 가슴을 내미는 오름에 초대하는 일입니다.

드러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음을. 앞으로도 살아갈 것임을.